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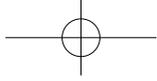


# ADD FONTS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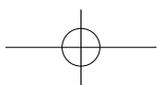
제 9기 **AFP**

최고지도자  
인문학과과정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 제 9기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을 열며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인문학의 탐구 대상에는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등의 전통적 영역 외에도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과학, 기술, 경제, 경영 등의 영역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 요소들이 인간

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은 문학 및 예술 등 인류의 정신적 유산을 이해하고, 인간 사회의 제반 현상 및 문제를 역사적,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학문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문화를 읽고, 생각하고, 대화하며 사물을 보다 큰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인류 문명의 원천인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자 여러분들께서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은 즉각적 효용성이나 물질적 가치성만이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와 감성도 인간의 삶을 여유롭게하고 의미를 준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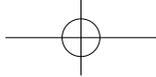
오늘날 대학에 대한 여러 매체의 보도 내용이 대학별 취업률, SCI 논문 발표 수, 세계대학평가 순위 등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물질문명의 압박 속에서

사회적 책무를 가진 대학 또한 자유로울 수 없겠지요. 그러나 대학교육이 이러한 기능주의에 압도되어 당장의 '효용성'과 수치 위주의 '업적' 추구를 지상 명령으로 받든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학이 이러한 편협한 시각에 함몰되어 학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생산성을 요구하는 자본의 논리에 끌려간다면, 결국 '인간'과 '인간학'은 사라지고, 오로지 '자본'과 '물질'의 형태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은 '결절이'의 얇은 맛이 아닌 씹으면 씹을수록 깊은 맛을 내는 '묵은지'의 맛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지도층인 여러분들께서 제9기 AFP에 입학하시면, 20주 동안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가까이 하지 못했던 인류문화의 정수를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삶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성찰하는 인문학 정신의 안내로 우주와 인간 사회의 깊은 원천과 조우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문학이 우리 자신과 세계를 얼마나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인문학 서적의 향기로운 행간 속에서 느끼는 기회도 갖게 될 것입니다. 인문학과의 조우는 여러분의 삶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사회와 인문학이 소통하고 또한 상생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인문학의 향연인 AFP에서 여러분을 곧 만나 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변 창 구



#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개요

## 교육목표

우리 사회 각계의 지도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창조정신과 윤리정신, 글로벌 마인드 등 인문학적 지식의 고양을 통하여 최고의 지도자로 발전하도록 한다.

## 교과과정

### AFP 과정 5대 주안점

- + 역사의식 함양과 미래사회에 대한 이해
- + 문화예술의 이해와 '풍요로운 삶' 모색
- + '삶의 내면'에 대한 철학적 성찰
- + 세계화시대의 다문화 탐방
- +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문화변동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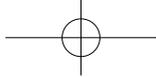
## 개설과정 목적

인문학이 한국 사회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자기 스스로의 길을 찾지도 못하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깁쟁'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천더기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서양의 대학제도에서는 인문학이 학부교육의 중심이며, 인문학 이후의 전문대학원(의대, 법대, 경영대 등) 교육의 밑거름이다. 인문학은 인간을 풍요롭고 숭고하게 만들며 그 학문적 추구는 사회적으로 당장 유용하지 않게 보이지만, 실제로 인문학은 가치창출의 원천이다. 인문학은 다음과 같이 인간이 처한 사회의 중요한 요구에 긍정적인 대안 혹은 해답의 단초를 제공한다.

- + 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상상력을 동원한 비판적 사고
- +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에 대한 비판적이면서 열린 시각에서의 토의
- + 다른 사람들,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문화에서 경험된 소중한 유산에 대한 이해와 인식

## 주임교수단

- + 주 임 교 수 : 변창구(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 + 부주임교수 : 배철현(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학과)  
박성창(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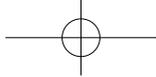
## 아드 폰테스(Ad Fontes)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학문으로 인식되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과 경제지상주의의 그늘 속에서 한때 인문학은 경제 및 사회 발전과는 무관한 비실용적 학문으로 간주되고 외면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오늘날 인문학적 교양과 지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CEO들과 많은 대중들의 관심은 인문학적 지식과 상상력에 기반을 둔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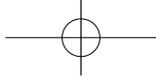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에 대한 거시적 이해의 필요성 및 인문학적 지식과 상상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인문학의 지혜, 통찰력, 종합적인 판단능력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와 문화가 발전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회의 여러 분야를 이끌어갈 최고지도자들의 성장을 위하여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은 우리 사회 각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2007년 9월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교육 내용은 본 과정에 참여한 이전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언론 등 관심 있는 분들에게서 월등한 차별성과 수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과정이 제공하는 인문학적 지식과 상상력이 시대를 앞서가는 창조적 사고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굳게 믿으며 본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 여러분들에게 창조적 에너지와 비전, 그리고 진정한 인문학적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인문대학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제9기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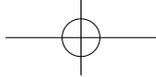


##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프로그램

08월 23일(화)	입학식 엔지니어 하우스	
08월 30일(화)	동아시아의 평화론 한국의 국가브랜드 기록문화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허성도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09월 06일(화)	문명과 텍스트 1 - 이상 문학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권영민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09월 13일(화)	추석	
09월 20일(화)	규장각탐방 원효와 한국불교 한국미의 새로운 이해	남동신 (서울대 국사학과) 김개천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09월 24일(토)	안동 학술 기행	남동신 (서울대 국사학과) 김건태 (서울대 국사학과)
09월 27일(화)	훈민정음 이천년을 함께한 명주실의 소리, 가야금	김주원 (서울대 언어학과) 이지영 (서울대 국악과)
10월 04일(화)	문명과 텍스트 2 - 『논어』 그리고 영혼에 역사를 품은 문명	김월희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10월 11일(화)	한국 회화의 이해 서양 미학의 이해	장진성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이해완 (서울대 미학과)
10월 18일(화)	문명과 텍스트 3 - 『도덕경』 읽기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10월 25일(화)	중국의 문자정책과 한자 사용 진한제국과 황제권력	이강재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김병준 (서울대 동양사학과)



10월 29일(토)	중국 학술 기행	박한제 (서울대 동양사학과) 이강재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11월 08일(화)	메이지유신 민담 신화 역사: 신데렐라 이야기	박 훈 (서울대 동양사학과) 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11월 15일(화)	한국문학과 한국인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박성창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종소 (서울대 노어노문학과)
11월 22일(화)	볼테르와 계몽주의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이영목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김춘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11월 29일(화)	문명과 텍스트 4 - 플라톤의 『국가』	이태수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
12월 06일(화)	전체기수합동수업 인문학 콘서트: 송년의 밤	
12월 13일(화)	칸트와 이성비판 카프카의 『변신』	백종현 (서울대 철학과) 최운영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12월 20일(화)	문명과 텍스트 5 - 『성서』, 『탈무드』, 『꾸란』에 등장한 이상적인 인간	배철현 (서울대 종교학과)
12월 27일(화)	겨울방학	
01월 03일(화)	겨울방학	
01월 10일(화)	셰익스피어 보고서 발표	변창구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01월 17일(화)	수료식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 인문학의 향연 이끄는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 “상상력의 원천 인문학 재발견...CEO 50여명 중국 시안 문화탐방기 문화콘텐츠 스토리로 '미래 먹을거리' 만든다”



지난 4일 당현종과 양귀비가 처음 만났던 것으로 유명한 중국 시안 화칭즈에서 서울대 인문학 과정을 수강하는 CEO들이 박한재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8시 짙은 구름으로 뒤덮인 중국 산시성(陝西省) 시안(西安)의 화칭즈(華清池). 중국 4대 미녀로 꼽히는 당나라 양귀비가 목욕을 했던 곳으로 유명한 유적지다. 이 궁전식 목욕탕 온천이 순간 화려하고 장엄한 뮤지컬 무대로 변신했다.

당(唐) 현종과 양귀비의 애뜻한 사랑을 그린 뮤지컬 '장한가(長恨歌· 끝없는 슬픔의 노래)'. 화칭즈의 모든 건물이 무대요, 조명이다. 주변 자연까지도 공연의 배경으로 동원됐다. 화칭즈 뒷산인 여산은 밤하늘이 됐다. 조명을 촘촘히 달아 어두운 산 중턱에 초롱초롱한 별과 달이 떴다. 그 속에서 관객들은 1200여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화려했던 당 왕실과 당시 문화,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빠져든다. 화칭즈는 한번 둘러보고 가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이라는 역사와 스토리를 덧입히고 현대 테크놀로지를 결합해 현대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탈바꿈했다.

기업 CEO를 대상으로 마련된 서울대 인문학과정(AFP) 수강생 50여 명은 지난 2일부터 나흘 동안 시안 문화탐방에 나섰다. 양복 대신 배낭을 멘 이들은 시안 시내의 유적지를 찾아다니며 시안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푹 빠졌다. 역사·문화유적지에 담긴 문화·역사·철학이라는 소프트웨어와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인 하드웨어를 결합해 도시 곳곳의 이야기를 재창조하는 과정을 생생히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스토리(Story)가 미래"라며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의 힘을 엿봤다"고 입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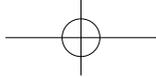
박상희 비룡소 대표는 "이야기를 입혀 고부가가치로 상품화하는 중국 문화유산 마케팅의 응용력을 봤다"며 "한국도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생각하고 문화유적지에 이야기를 입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실험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시안은 정부의 서부 대개발 정책에 따라 크고 작은 공사가 한창이다. 내륙에 산재해 있는 문화·역사·철학 등의 '이야기'를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해 미래의 먹을거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배철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중국 정부는 시안에만 2015년까지 200조원을 투자해 이곳을 문화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중국 경제 발전축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하고 있으며 시안은 그 중심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인 유적지인 진시황릉과 병마용 등을 유심히 본 김기범 크레아웍스 대표는 "시안은 이야기가 꿈틀대는 도시"라며 "이야기의 뿌리인 역사, 철학 등 인문학적 요소가 무궁무진한 만큼 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의 '잠룡'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동거마(銅車馬· 청동으로 만든 말과 수레 예술품)를 가리키며 "중국판 영화 '벤허'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고 감탄했다. 그는 "과거의 이야기를 응용해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를 재창조할 수 있는 콘텐츠의 힘을 길러야 한다"며 "한국에도 경주 등에 수많은 유적이 있는데 이야기를 입혀야 한다. 그냥 막걸리와 장인의 사연이 담긴 막걸리의 맛은 전혀 다른 것과 같다"고 덧붙혔다.

수강생들은 과거를 둘러보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이우석 코오롱제약 대표는 "유적들은 '국가'라는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중국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한국 기업은 국가가 우선시되는 중국의 패러다임과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교진 일성레저산업 대표는 역발상을 했다. 강 대표는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을 보다 보니 반대로 큰 것에 가려져 외면하기 십상인 것들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변창구 서울대 인문대 학장은 "시안은 당나라가 한나라의 문물을 자기 것으로 소화한 뒤 어떻게 세계적인 것으로 다시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변 학장은 "지금까지는 1등을 모방해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계에서 벤치마킹을 당해야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 상상력의 원천인 인문학이 앞으로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안 = 임영신 기자]



#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수강생 추천의 글

+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 원장(前 기획예산처 장관)

뒤늦게 예수넘어 주위의 권유로 참여한 AFP 1기 과정에서의 인문학 공부가 경제분야에서 살아온 나의 삶을 확 바꾸어놓았다. 수료 후, 나는 지금 4년째 안동의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선현의 지혜와 삶의 가치를 현대인에게 심어주려고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 있으니 말이다.

+ **윤재운**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인문학적 시각이야말로 역동적인 재판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같다.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재판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경영자로서 지녀야 할 덕목과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는 인문학적 사고와 판단이 필수적이다. 나는 오늘 저녁 과거 르네상스의 인문학자인 마키아벨리가 했던 것처럼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서재에서 인문학과 벗하고자 한다.

+ **류재열** 조일건설 대표이사 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목 받는 학문으로서 인문학이 떠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인간이 소원하는 바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지 명왕성에 갈수 있는 고도의 기술력 확보가 아니기 때문이며, 인간 지고의 가치인 행복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정보나 기술이 아닌 진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김형오** 국회의원(前 국회의장)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정치인들도 인문학에 허기와 갈증을 느껴야 한다. 인문학의 식탁에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인문학의 샘터에서 메마른 목을 축여야 한다....이제 나는 가을 산의 오솔길을 걷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에 오크통 속에서 오래 숙성시킨 와인의 향기로움까지 더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 **최창수** 삼성전자 고문

매주 화요일 저녁, 수십명의 최고 경영자들이 진지하게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최고 수준의 학자및 전문가들로부터 깊이를 알 수 없는 인문학의 세계로 안내 받아, 그 지식의 세계에서 풍겨나오는 고급스런 향기가 우리를 더욱 풍요하고 창의롭게하여, 현실 세계에서도 품격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인문학이 역설적으로 최고의 실용학문이라는 것이 아닐까?



## 수업 안내

### 교육기간

2011년 8월 23일(화) ~ 2012년 1월 17일(화)

###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6:00 ~ 10:00(1일 2강좌)

국내 워크숍(1박2일) 1회, 국외 워크숍(3박4일) 1회

### 교육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0 현대산업개발 빌딩

전 화 02)2008-9111

지 하 철 2호선 삼성역 7번 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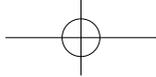
## AFP관련 문의처

전 화 02)880-2570, 2637(인문대학 AFP 사무국)

팩 스 02)871-0064

홈페이지 [www.snuafp.com](http://www.snuafp.com)

주 소 (151-74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6동 313호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사무국



## 입학 안내

<b>모집인원</b>	45명 내외
<b>입학자격</b>	인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인사로서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가진 자 + 공사기업체 CEO(회장·사장·임원) + 정부 고위공무원 / 부장급 이상 판·검사 / 국회의원 / 장성급 장교 + 교수 / 금융인 / 언론인 / 의사 /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인사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지도급 인사 ※ 전·현직 모두 지원 가능 / 부부동반 지원 가능
<b>이수요건</b>	출석 3분의 2 이상 / 기말보고서(에세이)
<b>모집기간</b>	2011. 7. 4(월) ~ 8. 5(금) 18:00
<b>제출서류</b>	1) 온라인 지원서 (AFP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입력) 2) 재직증명서(재직자에 한함) 3) 증명사진(반명함판 규격, 150kb 이상의 jpg 또는 png파일) 4) 자기소개서 또는 기관(회사) 안내 자료 5) 최근 2년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감사보고서 1부 ※ 5)는 중소기업 혹은 비상장 기업에 해당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지원접수 인정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b>원서교부 및 접수장소</b>	입학지원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입력 제출서류는 가급적 이메일 접수 이메일 접수 주소: <a href="mailto:apply@snuafp.com">apply@snuafp.com</a> (AFP 사무국 입학전형 담당자) 홈페이지: <a href="http://www.snuafp.com">www.snuafp.com</a> ※ 이메일 접수가 어려우 경우: 아래 주소로 우편 접수 가능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6동 313호
<b>서류전형 합격자 발표</b>	2011. 8. 12(금) 개별 통지
<b>등록기간</b>	2011. 8. 15(월) ~ 8. 17(수) (수강료 등은 추후 통지함)



**AFP** *Ad Fontes* Program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Seoul National University

